
고준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장

”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의 구체적인 연방제 수준 자치분권과 균형발전
방안제시 환영, 세종시가 자치분권의 상징모델 되기를 ”

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이 28일 대통령업무보고(핵심정책토의)에서
“중앙과 지방이 상생하는 강력한 지방분권을 통해 전국이 골고루 잘사는
나라를 만들고 핵심 사무와 기능을 지방에 과감하게 이양하겠다” 고 발
언하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한 것에 대해 전적으로 환영하며
공감한다.

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정책을 본격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
제시되어 그 첫걸음을 뗀다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 아닐 수 없다.

특히, 지방의회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입법 전문 인력을 확충하고, 자율
성을 강화하기 위해 의회 인사권을 독립하는 방안은 지방의회의 위상강화와
역량제고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며,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선
결과제이다.

이러한 노력의 시작으로 내년 개헌에 지방분권을 위한 구체적인 세부사
항들이 명시 되어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는 밑거름이
되기를 바라며, 지난 7월 우리 시를 자치분권 시범도시로 완성하겠다는
국정운영 5개년 계획과 연계하여 세종시가 지방분권을 선도하는 상징모델이
되기를 바란다.

붙임 고준일 의장 논평 관련 프로필 사진 1부.(별첨) 끝.